

# 『월인석보』 행관(行款)의 변개(變改)에 대한 서지적 고찰: 1행 자수(字數)의 변동을 중심으로\*

이 호 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국문초록

『월인석보』는 임금(세조)이 간행에 관여한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행관(여기서는 1행 당 글자수)의 변개가 많이 나타난다. 이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편하면 서, 특히 「석보상절」 부분에서 많은 내용의 추가와 수정이 행해진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월인석보』는 『석보상절』보다 불경 원전의 내용에 충실한 경향을 보여주는데, 그로 말미암아 『월인석보』는 판각의 저본이 되는 판하본이 완성된 이후에도 그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있었다. 그 결과가 현전본에서 행당 글자수의 변동으로 나타난다. 본고는 『월인석보』 현전본에서 1행 자수의 변동이 있는 부분을 전수조사하여 그 변개의 유형과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월인석보』의 문헌 서지적 특징의 한 단면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행당 자수의 변동이 일어난 부분은 그 대부분이 판하본 완성 이후의 원고의 추가나 내용의 수정으로 인한 것인데, 이들 가운데는 판각이 완료된 이후의 수정에 의한 것도 있고, 간행이 완료된 이후의 수정에 의한 것도 있다.

■ 주제어 ■ 월인석보,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행관, 자수, 변개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hkleee@knou.ac.kr

## 1 머리말

『월인석보』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1447년(세종 29)에 편찬되어 활자본으로 간행된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편하여 1459년(세조 5)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책이다. 15세기 중엽의 한글 초기 문헌으로서 그동안 서지학적, 국어학적으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월인석보』의 문헌적 연구 가운데는 합편 과정에서의 변개(變改)에 대한 것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의 합편이 문자 그대로의 단순한 합편이 아니라 체재, 형식, 내용 면에서 바뀌거나 고쳐졌기 때문이다. 특히 「석보상절」에 있어서는 내용의 수정과 추가가 많아서, 전혀 새로운 자료가 되었다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본고는 『월인석보』 편찬 간행 과정의 여러 가지 변개 가운데, 행관(行款)의 변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행관’이라고 하면 행격(行格), 곧 한 면(面)에 실리는 본문의 행수(行數)와 한 행에 들어가는 자수(字數)를 말하는 것이지만, 『월인석보』의 경우 권두에 수록된 「훈민정음언해」를 비롯하여 「석보상절서」, 「어제월인석보서」, 그리고 본문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에 이르기까지 행수의 변동은 없으므로, 실제로는 1행당 글자수의 변동이 있는 부분만이 고찰의 대상이 된다.

『월인석보』의 행관에서 한 행의 글자 수가 늘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음은 일찍이 안병희(1987)에서 언급된 바 있다. 거기에서는 권11을 대상으로 하여 “1행 자수가 균일하지 못한 사실은

왕이 간행에 관여한 책으로는 극히 드문 일”이라 하였고, 그 원인을 “『법화경』의 맨 앞부분이 수록된 이 책 권11의 편찬과 간행이 서둘러 행해진 결과”(안병희 1987/1992: 218)로 보았다. 우리는 이 논의를 현전본 『월인석보』 전권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행당 자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전수조사하여 그 변개의 유형을 나누고, 그러한 변개가 일어난 시점과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월인석보』의 문헌 서지적 특징의 한 단면이 잘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 2 『월인석보』의 체재와 기본 행관

『월인석보』의 저본(底本)인 활자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은 한 면이 8행 15자로 동일한 행관으로 되어 있다. 이 두 책이 목판본 『월인석보』에서 행수가 7행으로 줄고,<sup>1)</sup> 1행 자수도 「월인천강지곡」은 14자, 「석보상절」은 16자로 바뀐다. 다만 「석보상절」은 한 자 낮추어 실리므로 실제 자수는 1행 15자이다.<sup>2)</sup> 그러므로 원 책의 내용을 『월인석보』에 똑같이 옮겨온다면 「월인천강지곡」은 행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나, 「석보상절」은 행수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sup>3)</sup> 권두에 실려 있는 부속문자의 경우, 「훈민정음언해」와 「석보상절서」는 1행 16자로 「석보상절」의 행관과 일치하고, 「어제월인석보서」의 경우는 한문

1) 『월인석보』는 계선(界線)이 있고 본문의 글자도 커서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보다 행수를 적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행수가 1행 줄었어도 반광곽(半匡廓)의 모양은, 행수가 1행 많은 『석보상절』에 비해 정방형에 가깝다.

2) 「석보상절」의 협주도 본문과 마찬가지로 1자 낮추어 실제 15자인데, 별행주가 되면 2자 낮추어 14자, 다시 별행주가 되면 3자 낮추어 13자가 된다.

3) 『석보상절』 권9와 『월인석보』 권9의 「석보상절」 부분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원문과 그 주석은 1행 14자로 「월인천강지곡」 본문과 일치하나, 그 언해문은 16자(1자 낮추었으므로 실제 자수는 15자)로 「석보상절」의 행관과 같다. 방대한 분량의 『월인석보』 편찬에 앞서서 그 체제에 맞추어 행관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판하본을 작성하였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해진 1행당 글자수에서 벗어났더라도, 본고에서 행관의 변경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있다. 편찬 체제 상의 필요에 따라 편찬자가 의도적으로 행당 자수를 달리한 다음의 세 가지 경우이다.

### (1) 권수제와 미제가 수록된 행

『월인석보』의 수제와 미제는 ‘월인천강지곡/석보상절’의 2행으로 실리는데, 해당 서명의 아래에 권차 표시가 되고 각 글자에는 한글음이 부기되므로, 한 행에 할당된 16자를 넘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현전본 권21의 첫 행은 ‘月嶁印힌千천江장之징곡곡第뎡二싱十십一일’로 총 20자이지만 모두 한 행에 들어 있다. 1행 자수를 엄격히 지키면 서명이 다음 행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다른 권차와 균형을 맞추어 한 행에 모두 수록한 것이다.

### (2) 「석보상절」 본문에서 미래의 이야기를 삽입하는 경우

『월인석보』에서 「석보상절」 본문이 2자 낮추어져 행당 14자로 실린 부분이 있다. 현재의 상황과 관련된 미래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삽입하는 경우이다. 이 미래의 이야기는 2자 낮추어져 1자 낮추어진 현재의 이야기와 행관으로도 구별된다. 현전

본 가운데 권2와 권4에 그러한 예가 있다. 권2(49b4~77a)에는 석가모니 탄생 당시 인도와 중국에서 일어난 상서(祥瑞)에 대한 서술에 이어, 그로부터 1,087년 후 불교가 중국에 전파될 때의 이야기가 2자 낮추어 실려 있다. 권4(16b7~38a4)에는 석가모니가 성불 후 마왕을 항복시키는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지 100년 후에 우바국다(優波鞠多) 존자가 설법을 방해하는 마왕을 또다시 항복시키는 이야기가 2자 낮추어 수록되어 있다.

〈3〉 권25의 마지막 「월인천강지곡」 기583에 대한 주석  
 현전본 권25의 말미에는 「월인천강지곡」 기583이 실려 있는데, 그에 딸린 주석은 행당 15자로 되어 있다. 「월인천강지곡」의 주석은 1행 14자가 정격이므로 여기서는 1글자가 늘어난 셈이다. 그 주석의 내용이 해당 「월인천강지곡」의 자구 주석이 아니고, 석가모니의 생애를 요약한 것이므로 「석보상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1자를 낮추지 않은 15자이므로 「석보상절」의 1자 낮춘 15자와는 전혀 다르다. 이에 대해서 이호권(2011a: 69f)에서는 「월인천강지곡」의 마지막 노래인 기583은 그에 해당되는 「석보상절」이 없으므로, 이 주석이 「월인천강지곡」의 주석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체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석보상절」과 절충한 행격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른다면 이 행관의 변동은 앞의 <1>, <2>와 마찬가지로 편찬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정한 편집 체재이므로 간행과정에서의 변개로 볼 수 없다.

### 3 행관 변동의 양상과 그 해석

#### 1) 행 넘김과 장 넘김의 기피

『월인석보』에는 판하(版下) 서사(書寫) 과정에서 서사자가 고의로 해당 행의 글자수를 늘린 예가 간혹 있다. 특히 협주에서 그러한데, 마지막 한두 글자가 다음 행으로 넘어가게 될 때 행을 넘기지 않고 글자의 크기와 간격을 줄여서 그것을 같은 행에 넣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권18의 55b7-2(55b면 제7행 쌍행 협주의 제2행, 이하 같음)의 끝에 ‘(그쁘디) 이곤ㅎ니라’의 ‘이곤ㅎ니라’는 4자 공간에 쓰여져 있는데, 이는 1자를 더 써서 행이 넘어가지 않게 한 것이다.<sup>4)</sup> 권23의 92b1의 협주는 2자가 다음 행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쌍행에서 각각 1자씩 늘려 행 넘김을 막은 예이다.<sup>5)</sup> 이는 미리 자수를 계산하면서 서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행 넘김을 피하기 위해 행당 1글자 정도가 증가하는 일은 어느 정도 서사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 아닌가 한다.

행 넘김을 피하는 데서 더 나아가, 장 넘김을 막기 위하여 행관의 변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권9의 마지막 장인 제62장은 「석보상절」 본문인데 모든 행이 정상 자수보다 1글자씩 많아졌다.(단 62a1은 2자 증가). 해당 공간에 총 15자 분량이 더 들어간 것이다. 정상 행격으로 판하를 만든다면 1행이 더 늘어나게 되어 권말 서명이 장63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리되면 권9

4) 이러한 이유로 글자 수가 1자 많아진 예는 권19(20a2-2), 권20(91a3-2), 권23(89a5-2) 등이 있다.

5) 물론 정해진 행관에 맞추어 주석의 1글자가 다음 행으로 넘겨져 1자로 1행을 이루는 경우도 많은데(권2:18a2; 권11:89a3 등), 이것이 판하 서사의 원칙임은 당연하다.

의 마지막 장은 권말서명 2행만 들어가게 된다. 원칙으로는 그 리해야겠지만, 판각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장62 전체의 행 당 자수를 늘림으로써 책판 수를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월인석보』 본문뿐만 아니라, 서문에서도 이와 같은 변개가 있다. 「어제월인석보서」의 3a7과 6b7의 협주는 1글자씩 더 들어가 있다. 주석의 1글자로 인하여 행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판하 서사자의 의도인 것이다. 「석보상절서」에는 장 넘김을 막기 위한 행관의 변개가 보인다. 서문의 마지막 장 마지막 행인 6b7-2의 주석이 정상 자수보다 2글자 더 들어가 있다. 원칙 대로 행관에 맞추어 판하를 쓴다면, 다음 장인 7a면 제1행에 ‘(히일후)미라’의 ‘미라’가 들어가고 나머지 13행이 빈 행이 되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앞에서 본 권9의 마지막 장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해당 행의 자수가 많아진 것이다.<sup>6)</sup>

## 2) 간행 이후의 수정 판각

그동안 『월인석보』의 행관 변개에 대해서는, 판하가 될 원고가 완성된 이후에 원고의 수정이나 내용의 추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막연히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수정과 추가의 시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판각 이전의 판하본 수정인지 아니면 판각(간행) 이후의 매목(埋木)에 의한 수정, 또는 추가 판각에 의한 내용의 보충인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그에 대한 식별과 판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남아 있는 『월인석보』만을

6) 「석보상절서」의 행관 변개에 대해서는 이호권(2011b: 105f)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전하는 『월인석보』 권15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준다. 주지하다시피 권15는 2종이 전한다. 하나는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이하 성암본)이고,<sup>7)</sup> 또 하나는 선운사 정보박물관 소장본(이하 선운사본)이다.<sup>8)</sup> 성암본은 전체 책장의 절반도 안 되는 분량만 남아 있으나, 초쇄본임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인면(印面)이 뛰어나다. 두 책은 같은 책판에서 인출된 것임이 분명하나, 서로 내용이 다른 부분이 본문 2곳과 협주 2곳이 있다. 이들 차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론된 바 없으므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우선 본문이 달라진 곳부터 보기로 한다.(원문과의 비교를 위하여 간경도감판 『법화경언해』(1463년)의 해당 부분을 함께 제시한다.)

- (1) a. 藥王아 내 녀느 나라해 化人 보내야 모다 法 드를 衆이 득외에 ㅎ며 <성암본 15:58a>
- b. 藥王아 내 녀느 나라해 化人 보내야 法 드를 衆을 모도게 ㅎ며 <선암사본 15:58a>
- c. 藥王아 내 餘國에 化人 보내야 爲 ㅎ야 法 드를 衆을 뫼호게 ㅎ며 <법화경언해 4:100a>, (원문: 藥王아 我於餘國에 遣化人 ㅎ야 爲其集廳法衆 ㅎ며)

7) 성암본은 1997년에 세상에 그 존재가 알려졌고(조선일보 1997.7.16.), 이후 최은규(1998)에서 영인과 함께 해제로써 학계에 소개되었다.

8) 선운사본은 2000년 순창 구암사에서 발견되어(중앙일보 2000.5.17.) 국가지정문화재(보물 740-10) 지정 후 고창 선운사로 이관되었다.(강순애 2003). 디지털한글박물관(당시 국립국어원 소관)에 소장되어 있던 사진 파일로 영인한 것이 『역주 월인석보(제15)』(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0)에 실려 있다.



<사진 1> 성암본 15:58a



<사진 2> 선운사본 15:58a

이 구절은 『법화경』 「법사품」의 내용으로, 석가여래가 약왕 보살에게 자신이 멸도한 이후라도 법화경을 설법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설법을 들을 청중을 모아주겠다고 말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성암본과 선운사본의 문맥은 전혀 다르다. 성암본에서는 (법화경을 설법하는 다른 나라에 여래가 만든 화인(化人)을 보내서) “그들(화인)이 모두(모여서) 청중이 되게 하며”로 번역하였고, 선운사본에서는 “(화인이) 청중을 모으게 하며”로 번역하였다. 성암본의 번역은 바로 뒷구절의 “또 화비구(化比丘), 화비구니 등을 보내어 청중이 되게 한다”는 말과, 그 뒤에 이어지는 “이 ‘화인들’(화인, 화비구, 화비구니 등을 합쳐서 지칭)이 모두 법을 듣고 신수(信受)한다”는 문맥에 맞추어 번역한 것이나, ‘爲其集廳法衆’이란 원문의 문장 구조에는 맞지 않는다. 원문과 번역문의 대조로만 보면 성암본의 번역은 오역에 가깝다. 선운사본은 원문의 ‘爲其’는 생략하였지만, ‘集

廳法衆’이란 원문 자구에 충실한 번역이다. (1c)에서 보듯이, 이후 간경도감에서 이루어진 『법화경언해』의 번역은 선운사본과 일치한다.

그런데 내용이 달라진 제2행에서 선운사본은 글자수가 성암본보다 2자 적다. 성암본은 정상 행격인 15자이나, 선운사본은 13자인 것이다. 2글자가 적으므로 선운사본의 글자가 조금 커지고 자간이 넓어졌음을 볼 수 있다.(<사진 1, 2> 참조, □로 표시한 부분은 필자). 이는 선운사본이 성암본의 책판을 수정하여 새로 간행한 것임을 말해준다. 책판이 완성되어 이미 간행까지 이루어졌으나, 번역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부분을 파내고 매목하여 수정 판각한 것이다.<sup>9)</sup> 다음에 보이는 예도 선운사본에서 본문의 어구가 매목 수정된 부분이다.(어구 수정으로 선운사본의 제3행이 1글자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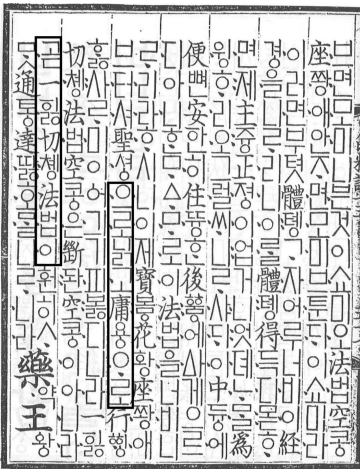
- (2) a. (諸佛이…) 各各 寶華 가지샤 그드기 우희샤 니르샤디 <성암본 15:81a3~4행>  
 b. (諸佛이…) 各各 寶華를 우흠 츠게 가지샤 니르샤디 <선운사본 15:81a3~4행>  
 c. (諸佛이…) 各各 보빅곳 우흠 츠게 가지샤 니르샤디 <법화경언해 4:129b>, (원문: 各齋寶華滿掬訶샤 而告之言訶샤디)

이 부분은 『법화경』의 「견보탑품」으로 제불(諸佛)이 석가모니불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시자(侍者)를 보내면서 말을 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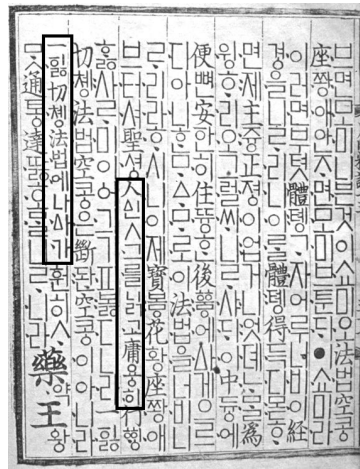
9) 두 책 가운데 성암본을 앞선 판으로 보는 이유는, 번개된 부분에서, 첫째, 성암본의 자수가 정상인 데 비해 선운사본은 자수가 달라졌고, 둘째, 성암본의 계선(界線)은 바르나, 선운사본은 매목 과정에서 계선이 손상된 흔적이 있고, 셋째, 선운사본의 번역이 이후에 간행된 『법화경언해』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장면이다. 이때 제불이 각각 석가모니불께 공양할 보화(寶華)를 한 움큼씩 잡는 대목이 달리 표현되어 있다. 한문 ‘各齋寶華滿掬’에 대한 번역인데, 성암본은 “(보화를) 가지시어 가득 움켜져서 (시자에게 이르시되)”로 되었으나, 선운사본에서는 “한 움큼 가득차게 가지셔서”로 수정하였다. 성암본은 ‘齋寶華’와 ‘滿掬’을 병렬구조로 파악한 반면, 선운사본은 ‘滿掬’을 부사구로 번역한 것이다. 문장 구조를 달리 본 것인데, 편찬자는 성암본의 번역을 용인하기 어려운 오류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미 간행된 책판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간행한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선운사본에서 수정된 번역은 (2c)의 『법화경언해』의 번역과 완전히 일치한다.

권15에서 협주의 내용을 수정한 2곳은 모두 57b면에 나타난다. 성암본은 해당 자수가 바르나, 선운사본은 해당 협주의 자수가 해당 각 2자씩 늘어나 있다. 그에 따라 선운사본의 제5



<사진 3> 성암본 15:57b



<사진 4> 선운사본 15:57b

행과 제7행의 매목 수정 부분(□으로 표시-필자)은 글자가 작고 간격이 촘촘하다.<사진 3, 4> 참조. 두 협주의 내용 비교를 위하여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법화경언해』와 그 원문의 내용을 함께 보인다.)

- (3) a. 이제 寶華座에 브터서 聖으로 넓고 庸으로 行흥  
사르미 이어기 기피 불디니라 <성암본 57b5-2>
- b. 이제 寶華座에 브터서 聖人스 그를 넓고 庸히 行  
흥 사르미 이어기 기피 불디니라 <선운사본 57b5-2>
- c. 이제 寶華座에 브터서 聖人스 글 넓고 常스 헝덕  
헝느닌 이에 기피 불디니라 <법화경언해 4:99b>,  
(원문: 今夫據寶華座<sub>ᄃ</sub>야셔 而聖讀<sub>ᄃ</sub>고 庸行者<sub>ᄃ</sub>는 宜深  
鑒乎此 | 니라)
- (4) a. 一切法空은 斷空이 아니라 곧 一切法이 흰히 스믓  
通達호물 니르니라 <성암본 57b7-1>
- b. 一切法空은 斷空이 아니라 一切法에 나사가 흰히  
스믓 通達호물 니르니라 <선운사본 57b7-1>
- c. 一切法空은 斷空이 아니라 一切法에 나사가 흰히  
스믓초물 니르시니라 <법화경언해 4:99b>, (원문: 一  
切法空者<sub>ᄃ</sub>는 非斷空也라 卽一切法<sub>ᄃ</sub>야 廓然了達之謂也  
| 시니라)

(3)에서 번역이 달라진 것은 원문 ‘聖讀庸行’ 구절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최초에는 ‘聖으로 넓고 庸으로 行흥’(성암본)로 번역하였으나, 간행 이후 ‘聖人스 그를 넓고 庸히 行흥’(선운사본)로 번역을 수정하여 다시 간행하였다. 사실 성암본의 번역은 단순한 축자역(逐字譯)으로 한문의 원의(原意)를 이해하기 어렵

다. 수정된 번역이 협주(계환의 요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번역으로 보인다. (3c)의 『법화경언해』의 번역은 선운사본과 유사하나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번역이다.<sup>10)</sup>

(4)는 성암본에서 한문 원문 ‘卽一切法’에서의 ‘卽’을 부사 ‘곧’으로 보아 ‘곧 一切法이’로 번역했던 것인데, 선운사본에서는 여기서의 ‘卽’자가 동사 ‘나아가다’로 쓰인 것으로 파악하고 그 번역을 바로잡은 것이다. 한문구로만 본다면 성암본과 같은 번역도 가능한 것이지만, 불경의 내용으로 보면 선운사본의 번역이 문맥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불경 지식의 심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4c)의 『법화경언해』에서의 번역도 선운사본에 일치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월인석보』의 내용 수정은 간행이 완료된 이후까지도 추가 수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월인석보』 권15에서 성암본이 현전하지 않았더라면, 선운사본에서의 행관 변개는 판각 과정에서의 판하본의 수정으로만 인식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매목 수정 이전의 어구, 어형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암본의 존재로, 이제까지 장황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행관의 변개가 중대한 서지적 사실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

10) 선운사본에서도 『법화경언해』와 같은 번역구를 염두에 두었겠지만, 매목 수정의 한계 때문에 제한된 글자수 내에서 최소한의 수정만 가능했을 것이다.

### 3) 책판 완성 이후의 추가 판각

『월인석보』에는 문단 단위 이상의 많은 내용의 추가로 인하여 책 장수(張數)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 이른바 장차(張次)가 추가된 부분인데, 여기서는 어김없이 1행 자수의 변동이 나타난다. 이들은 안병희(1987/1992: 217)에서 “판하가 될 책이 이루어진 뒤에 일어난 주석의 보충으로 생긴 결과”로 보았으나, 본고는 이 주석 보충의 시점을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 우선 해당 부분을 모두 제시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시각적 편의를 위해 장차 표시의 한자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대신한다.)

<권2> (20), 21之1, 21之2止, 22之1, 22之2止, (23)

<권7> (53), 54之1, 54之2, 54之3, (55)

<권9> (34), 35上, 35中, 35下, 36上, 36中, 36下, (37)

<권11> (83), 84之1, 84之2止, (85)

추가된 장수가 권2와 권7에서는 각각 2장, 권9에서는 4장, 권11에서는 1장이다. 이들은 모두 협주의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해당 부분은 행관에서의 자수 변동이 심하다. 내용을 추가하면서 해당 자수를 동일하게 하여 장수를 맞추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해당 장차의 추가 시점은 적어도 판각 과정이거나 그 이후로 보아야 한다. 판하본이 완성된 시점에 협주의 추가가 있었다면, 판하본의 장차를 연속 번호로 수정하여 판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리하지 못하고 추가된 부분과 그 앞뒤로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장차를 매긴 것이 그 사정을 말해준다.

추가된 책장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방식이 권(卷)마다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얼핏 보면 추가된 장차의 표시 방법이 임의적인 것 같지만, 기존의 본문 또는 협주의 어느 위치에 새로운 협주가 추가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대략 알 수 있다.

권2는 장21지1(원래는 장21이었던 장차)과 장23은 행관의 변경이 전혀 없다. 또한 장22지2b(원래의 장22b)에는 「석보상절」이 실려 있으므로, 추가된 내용은 21지2~22지2 사이에 들어간 2장이 약간 넘는 분량의 협주이다. 21지2의 3행부터 나오는 ‘六入’에 관련된 별행주만으로는 2장의 분량이 못 되므로, 다른 협주의 일부도 함께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기존의 장21, 장22와 그 사이에 끼어든 2장을 합쳐서, 이 4장의 장차를 21지1, 21지2, 22지1, 22지2와 같이 매긴 것임을 알 수 있다.

권7은 장53과 장55에는 행관의 변화가 없으므로 원래의 장차에 원래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사이에 있는 장54에는 「석보상절」이 실려 있으므로(현전본의 장54지1b), 추가된 내용은 그 앞과 뒤에 실려 있는 협주이다. 54지1a에 실려 있는 흑씨범지(黑氏梵志)가 무생인(無生忍)을 알게 된 일화와, 54지1b면 제6행부터 시작되는 건사니바리왕(虔闍尼婆梨王)의 보시행이 그것인데, 이 둘을 합치면 2장이 약간 넘는 분량으로 행당 자수를 늘려서 장수를 맞추었다. 추가된 장수는 권2와 마찬가지로 2장이지만, 장차를 매긴 방식이 달리 된 이유는, 권2는 21지2부터가 새로 판하를 쓴 부분인데 비하여(21지1은 장차 표시만 21에서 21지1로 바꿈), 권7은 54지1부터가 새로 판하를 쓴 부분이므로 장54를 54지1,2,3으로 나누어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권9는 장34와 장36(현전본의 장36하)의 행관이 일정하므로, 그 사이에 있는 협주가 추가된 부분이다. 원래의 35a면(현전본의 35상a면)에는 「석보상절」이 정상 행격으로 들어가 있었을 것이나, 그 뒤에 삽입될 추가 협주의 분량이 4장이 넘으므로 장 35a면의 「석보상절」 본문부터 글자수를 늘려가면서 장수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장35부터 새로 판하를 써서 판각하는 것이므로 장차 표시도 장35부터 바뀌었다.(원래의 장36(현전본의 장36하)은 장차 표시만 장36하로 바꿈). 추가된 협주는 구라제(究羅帝)와 선수(善宿) 비구의 이야기인데, 이 협주의 내용을 제거하고 본문만을 정상 자수로 맞추어 보면 원래의 장차, 행관과 정확히 일치한다.

권11은 장83에서 장85까지 행당 자수의 변동이 전혀 없으나, 장84가 84지1, 84지2로 가지번호가 매겨지면서 1장의 협주가 추가되어 있다. 이 협주에는 별행주가 많아서 행당 자수의 조정 없이도 1장 분량의 추가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장84지1b면의 2-2행부터의 내용, 곧 육상(六相) 가운데 6번째인 업계고상(業繫苦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면 원래의 장차, 행관에 딱 들어맞는다. 원래의 장84(현재의 84지1) 뒤에 1장의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으므로 장차 표시를 84지1, 84지2로 한 것이다.

그런데 장차 변경의 원인이 된 협주의 추가가 해당 권차의 판각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말해주는 또다른 근거가 있다.<sup>11)</sup> 이는 권말서명 아래 기입된 총장수 표시의 유

11) 그러나 이 협주의 추가 판각은 선운사본 권15의 경우와는 달리, 간행 이후의 일은 아닌 것으로

무와 관련된다. 총장수는 마지막 장차가 아닌 실제 장수를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 권2의 마지막 장차는 장77이지만 총장수 표시는 장21~22에서 추가된 2장을 합하여 ‘총79장’으로 표기된다. 그런데 최초의 판하본은 77장이었을 것이므로, 처음에 새겨진 책판에는 ‘총77장’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추가 장차가 있는 현전본들에서 총장수가 표시된 부분이 매목에 의해 수정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현전 원간본 권7과 권9의 권말서명 아래에는 총장수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후대의 복각본인 풍기 비로사판 권7에는 ‘총80장’(78a면)으로 총장수가 나타난다. 복각(覆刻)하면서 총장수 표시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장차를 추가하여 판각한 원간 초쇄본 권7에는 총장수가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sup>12)</sup> 권9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66장’이라는 총장수 표시가 권말에 있었을 것이다. 다만 후쇄시에 그 매목이 빠져나간 상태로 인출되어 현전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sup>13)</sup> 총장수 표시가 없는 현전본이 장차의 추가가 있는 권차에만 나타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

본인다. 권15에서의 수정은 장정(裝訂) 이후라도 교정해야 할 치명적인 오류지만, 내용 보안을 위한 협주의 추가는 그만큼 절실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12) 권7과 합본되어 있는 현전 원간본 권8(동국대 소장본)의 시중 영인본에는 권8에도 총장수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권8의 말미는 낙장으로, 영인본 간행 당시에 보사한 부분이다. 비로사판 복각본 권8에는 ‘총104장’(104b)으로 명시되어 있다.

13) 안병희(1987/1992: 217 주2)에서는 권9에 총장수의 표시가 없는 사실로써 『월인석보』의 체제가 통일되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나, 안병희(1993/2009: 266 주15)에서 총장수 표시가 없는 『월인석보』는 1495년 인출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견해를 수정하였다. 후쇄본이라는 점에서는 본고의 논의와 같으나, 본고는 총장수의 표시가 후쇄시 의도적으로 삭거된 것이 아니라, 매목 수정한 부분이 빠져나가 없어진 채로 인출된 것으로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4) 판하본 완성 이후의 수정

##### (1) 행당 자수가 증가한 경우

###### ① 본문과 협주의 추가

판하본이 완성된 이후에 본문의 내용 또는 협주의 추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여러 행 또는 여러 장에 걸쳐 행관의 번개가 일어난 경우이다. 이는 물론 판하 서사자가 판하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빠트렸던 것을 추후에 해당 부분만 행당 자수를 늘려서 새로 판하를 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권4의 16b7~38a4는 앞의 제2장의 <2>에서 보았듯이, 석가모니 열반 후에 우바국다가 설법하는 미래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인용한 부분인데, 「석보상절」과 그 협주는 모두 2글자씩 낮추어 실리게 되므로 실제 자수는 1행 14자가 정상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유독 장18에서만 행당 자수가 1~2글자씩 늘어나 실제 자수가 15~16자로 되어 있다. 행에 따라 들쭉날쭉한 것이 아니라, 장18a면의 최초 3행은 각 1글자씩 늘었고, 그 이후로 18b면의 6행까지는 일률적으로 각 2글자씩을 늘려 쓴 것으로 보아, 주도면밀하게 자수 계산을 하여 해당 면의 판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장차가 추가된 경우에 나타나는 행관 변화와 유사하지만, 이는 추가로 판각한 것이 아니라, 해당 면의 판하를 행당 자수를 일정하게 늘려서 균형 있게 본문(또는 협주)의 추가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증가된 글자수는 본문으로 쳐서 약 20여 자 정도의 분량인데, 그 추가된 내용이 어느 것인지

특정하기는 어렵다.

권25에서는 장68a면 제1행부터 장69 전체, 그리고 장70b면 제3행까지 일률적으로 행당 자수가 1글자씩 늘어나 있다. 아욱왕이 왕자 시절, 부왕인 빈두바라왕이 상사(相師)에게 여러 왕자들 가운데 다음 왕이 될 상을 가진 왕자를 묻는 장면이다. 여기에는 협주가 없으므로 본문 총 30자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총 2행 분량의 본문 내용이 판하본 완성 이후 추가되었거나, 아니면 판하 서사자가 실수로 원고 2행을 누락하였다가 그것을 수정하기 위하여 해당 부분의 판하 2장 반 정도를 자수를 늘려서 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협주가 새로 추가됨으로써 행관의 변화가 일어난 부분의 식별은 대체로 용이한 편이다. 권10의 16b면은 전체 7행이 각각 1자씩 많아져서 실제 자수가 행당 16자이다. 총 7자가 추가된 셈인데, 이는 제3행의 협주 추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협주는 본문의 ‘四道’에 대한 설명인데, 쌍행으로 실린 총 13자의 분량이므로 본문 7자의 공간을 차지한다. 이 주석은 최초의 원고에는 없었으나 판하본 작성 이후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권15의 71b면에서 제5행은 3자, 제6행은 2자, 도합 5자가 더 들어가 있어, 제6행에 삽입된 ‘寶幔’에 대한 협주(‘幔은 帳이라’) 추가와 관련된 행관 변경으로 볼 수 있으나 협주 분량이 본문 4자의 공간이므로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sup>14)</sup>

14) 이들은 판하 서사자가 주석을 빠트리고 서사하였다가, 나중에 그것을 추가하기 위하여 판하본 해당부분의 글자수를 조절하여 새로 썼을 가능성도 있다.

## ② 본문의 어구, 어형의 수정

판하본 완성 이후 본문의 어구나 어형이 수정되어, 그 수정된 부분만 자수가 증가한 경우가 있다. 해당 어구나 어형만을 최소한으로 수정한 것이므로 그 부분의 글자들은 크기가 작아지고 자간도 촘촘해서 쉽게 눈에 띈다.<sup>15)</sup> 이들 가운데는 관련 문헌과의 비교를 통하여 수정 이전의 어형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권9:28a면 제5행에서 ‘(爲頭)ᄃ야 이셔 더 (藥師瑠璃光如來)’의 ‘ᄃ야이셔더’는 3글자 공간에 5글자가 들어간 것이다. 판하본의 수정이거나 판각 완료 후의 매목 수정이거나 간에 최초에는 3글자로 된 어형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해당 『석보상절』에서는 ‘위두ᄃ야 잇느니’(9:11a)였으나, 『월인석보』에서는 뒤에 ‘더 藥師瑠璃光如來…’의 어구가 추가되면서 문맥 수정(아마도 ‘(爲頭)ᄃ야셔’)이 되었을 것이고, 판하본 완성 이후 다시 ‘ᄃ야 이셔 더’로의 어구의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권15:25a면 제5행의 ‘(一切智願은 손직 이셔 일티) 아니ᄃ엿다스이다’는 6글자 공간에 2글자를 늘려서 8글자를 판각한 부분이다. 해당하는 『석보상절』 권16이 전하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예컨대 ‘아니ᄃ더이다’ 정도)는 없으나, 『법화경언해』(4:41a)에서는 최종 수정된 형태와 똑같이 나타난다. 그 외에 본문에서의 어형 수정(글자수 증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앞뒤의 어형을 괄호 속에 넣어 함께 보

15) 이는 판각이 완료된 이후의 매목에 의한 수정일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물론 판하 서사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했던 글자를 최소한의 공간에서 수정한 것일 수도 있다.

인다.

- 권11: 108a3 (罪)根이 곱고 (增上慢<sup>하야</sup>) [3자 증가]
- 권11: 35b1 (아니)흔티 업스샤<sup>16)</sup> [1자 증가]
- 권15: 25a4 너기다니 [1자 증가]
- 권17: 3a1 부텃괴 슬뵗샤<sup>티</sup> [1자 증가]

#### ④ 협주의 어구, 어형의 수정

협주에서 어구나 어형이 수정된 부분은 본문의 그것보다 훨씬 많다. 해당 어구나 어형의 글자수가 늘어나 촘촘하게 들어 있는 행관 변경의 원인은 본문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권2:10a3-2의 “맛나 섬기스뵗시니라”는 정상 글자수보다 2자가 늘어나 촘촘하게 새겨져 있다. 과거세에 석가가 만난 여러 부처에 대해서는 모두 ‘맛나스뵗시니’(3회; 9b5, 9b7, 10a2)로 표현하였으나, 마지막에 가섭파불(迦葉波佛)을 만난 일에 대해서는 ‘맛나 섬기스뵗시니라’로 표현이 수정되었다. 수정 이전의 어형이 ‘맛나스뵗시니라’였을 것임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이 협주는 석가모니가 보처(補處)가 되어 도솔천에 있을 때 이름이 ‘호명(護明)’이었던 연유를 설명한 것인데, 그 ‘호명’이란 이름이 과거세에 가섭파불이 석가모니에게 수기할 때의 이름이기 때문에, 가섭파불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표현에서 ‘섬기’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권11에서 20b면 제6행 협주는 쌍행의 주석이 각 4자씩 늘어나 있다. 6글자 공간에 쌍행으로 10자씩 촘촘하게 새겨져 있다.

---

16) 여기서의 자수 증가는 행 넘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본문의 한자어 ‘名稱’에 대한 주석인데, 아마도 판하 완성 이후 (판각 이후의 매목 보각일 수도 있다) 주석의 내용이 해당 문맥의 의미에 맞게 “稱은 마즐씨니 德의 實이 일흠과 마즐씨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글자수 공간에 맞추어 원래의 주석문을 재구한다면, “名稱은 일흠과 마즐씨라”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협주에서 해당 어형의 글자수를 늘려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을 권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앞뒤의 어형을 괄호 속에 넣어 함께 보인다.

- 월석서 5a1-2 (法身을 슬복)시니라 [1자 증가]
- 월석서 10a4-2 所<sub>ᄃ</sub>字 [ᄃ 추가]
- 월석서 17b3 (父母仙駕) ㅎ습고 [1자 증가] (원문구결)
- 권11: 11a7-2 (물릴) 조츠시니 [1자 증가]
- 권11: 11b3-1 (더)러보며 조호물 혼가지로 ㅎ샤 [2자 증가]
- 권11: 95b7-2 (法을) 證<sub>ᄃ</sub>시느니라 [2자 증가]
- 권14: 38a3-1 (쁘들 조차) 다 나느니 [1자 증가]
- 권15: 68b1-1 (實相을 頓悟)케 하실씩 [1자 증가]
- 권18: 27b3-1 重<sub>ᄃ</sub>똥重<sub>ᄃ</sub>똥無<sub>ᄃ</sub>똥 [1자 증가]
- 권19: 70a2-1 (行)행을 일우니라 [1자 증가]
- 권23: 101a2-2 (本來 나) 겨시던 짜히 [1자 증가]
- 권25: 38a4-1 (그 가마) 우희 種<sub>ᄃ</sub>種<sub>ᄃ</sub>瑞<sub>ᄃ</sub>相<sub>ᄃ</sub>이 [1자 증가]
- 권25: 54a4-2 (迦葉佛)이 쏘 내게 (四牙<sub>ᄃ</sub>ᄃ) [1자 증가]
- 권25: 55b5-1 四分<sub>ᄃ</sub>律 [1자 증가]

이와는 달리 판하본에서 해당 주석 행 전체의 글자 크기를 고르게 써서 판각한 것도 보인다.<sup>17)</sup> 권11(35b1, 48b1~2), 권18

17) 권수에 실린 「훈민정음언해」의 1a면 제2~4행 협주에서 자수가 2~4자씩 늘어난 것도 이 유형에 속한다. 권수제가 '訓民正音'에서 '世宗御製訓民正音'으로 바뀜에 따라, 추가된 주석을 포함

(34b7-1~2), 권20(89b4-1, 90b2-2), 권25(11b6)의 협주에서 글자 수는 정상 행관에 비해 1~4자가 늘어났지만, 그 가운데 어느 어구의 수정에 의해 자수가 늘어났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 (2) 행당 자수가 감소한 경우

『월인석보』 행관의 변개에서 행당 글자수가 감소한 경우는 증가한 경우에 비해 그 예가 상대적으로 적다. 판하 서사 과정만을 놓고 보더라도, 원고를 보면서 행관에 맞추어 판하본을 만들 때, 글자를 빠트리고 쓰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으나, 원고보다 더 많은 글자를 써넣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현전본 『월인석보』에서 행당 글자수가 감소한 부분 가운데,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서 ①, ②의 경우가 그러하다.

### ① 대두법(擡頭法) 적용의 수정

「어제월인석보서」 18a면의 제5~7행은 얼핏 보더라도 정상적인 글자 크기와 간격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그 서문의 언해는 1행 16자(실제 자수는 15자)가 정상인데, 이곳의 3행은 모두 1행 12자로 되어, 총 12자 분량의 언해문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앞 장에 실린 한문 원문과 이 언해문을 대조해 보면 번역에서 수정될 만한 것이 없다. 이 수정은 판하본 내용의 수

---

하여 협주의 행당 자수가 늘어난 것이다. 간혹 행관 변개 이전의 것을 원본 또는 정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수정되어 간행된 책이 원간본이자 원본인 것임은 자명하다. 이호권(2011b:99) 참조.

정이 아니라 판하본 형식의 수정에 말미암은 것이다. 수정 이전의 판하는 ‘우흐로’ 뒤의 ‘父母仙駕’에서부터 행이 바뀌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하면 18a면의 제7행의 끝까지 정확히 올바른 행관에 들어맞는다.

「월인석보서」는 한문 원문에서 대두법이 적용된다. 원문의 ‘佛(4b, 21b), 昭憲王后(9b), 慈命(11a), 賜覽(12b), 先考(16a), 父母(17b)’가 이른바 평행(平行)으로 개행(改行)된 예인데, 해당 언해문에서는 대두법이 사용되지 않았다.<sup>18)</sup> 그러나 판하 서사자는 여기의 언해문에 대두법을 적용하여 서사하였고, 이후 그 잘못이 발견되어 수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수정이 판각 이전이라면 다음 면인 18b면의 앞부분 12자를 끌어와 행관에 맞게 새로 판하를 쓰더라도 18b면 제3행에서 자연스럽게 행관이 맞게 된다. 그런데 18a면 내에서 글자수를 대폭 줄여서 수정한 것을 보면, 이 부분이 판각 이후에 매목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② 「월인천강지곡」(기14)의 가사 수정

판하본 완성 이후에 수정이 일어난 예로 「월인천강지곡」 기 14의 본문 가사가 바뀐 것을 들 수 있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의 합편 과정에서 「석보상절」은 많은 내용의 수정과 보충이 있었던 데 비해, 「월인천강지곡」은 한자와 그 한글 독음의 순서가 바뀌고, 한자어에 대한 협주가 추가되는 정도의 변동만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기14가 『월인석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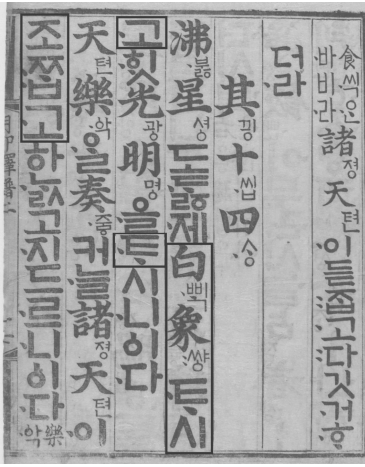
18) 언해문에서도 대두법이 적용된 것처럼 보이는 예가 ‘先考’(16a3)에 나타난다. 바로 앞 제2행에서 마지막 한 글자 공간이 있으므로 개행한 셈이지만, 그 맨 아래에 ‘先考’의 ‘先’자 한 글자를 넣기가 꺼려져서 임의로 행바꿈한 것이 아닌가 한다.

서 달라진 사실은 일찍부터 지적되었고(허웅·이강로 1962: 8), 그 변개의 이유에 대해서도 「석보상절」의 문맥에 따라 「월인천강지곡」이 고쳐진 것으로 보는(안병희 1993/2009: 262) 견해가 있었다. 그런데 이 변개의 시점은 특정되지 않고 막연히 『월인석보』로의 합편 원고 작성에서의 수정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해당 부분의 행관을 살펴보면 그 변개는 적어도 판하가 될 책이 완성된 이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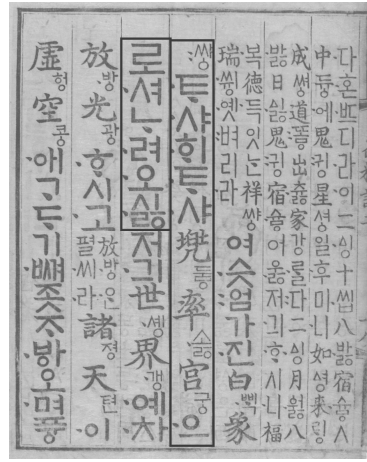
「월인천강지곡」 기14는 석가모니가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 부인의 뱃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장면인데, 『월인천강지곡』(권상)의 가사가(5a) 『월인석보』의 「월인천강지곡」에서 달라졌다(5b). 해당되는 「석보상절」의 내용도 함께 제시한다(5c).

- (5) a. 沸星 도똥 제 白象을 트시니 히 光明을 빼시니이다  
天樂을 奏커늘 諸天이 조쪼르니 하늬고지 드르니  
이다 <월인천강지곡 상: 5b-6a>
- b. 沸星 도똥 제 白象 트시고 히 光明을 트시니이다  
天樂을 奏커늘 諸天이 조쪼고 하늬고지 드르니이  
다 <월인석보 2:17a>
- c. 여섯 엄 가진 白象 트샤 히 트샤 兜率宮으로서 느  
려오십 저귀... 諸天이 쫓즈<sup>ㅁ</sup> 오며 <월인석보  
2:18b>

그런데 여기서 내용이 달라진 부분의 행관에 변동이 있음이 주목된다. 「월인천강지곡」은 1행 14자가 정상인데, 제4행과 제7행은 1자가 적은 13자이다.(<사진 5> 참조). 이 부분의 수정이 판하본 완성 이후에 일어난 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사진 5> 권2:17a



<사진 6> 권2:18b

이 수정 이전의 판하본의 내용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월인천강지곡』 권상에 수록되어 있는 본래의 (5a)를 해당 부분에 넣어 보면 정상 행관에 딱 들어맞는다. 제4행의 하단 ‘白象특시’는 원래의 판하본에서 ‘白象을 특시’가 들어 있었던 부분이고, 제5행의 첫 글자 ‘고’는 ‘니’,中间的 ‘특’는 ‘뻬’였는데, 이를 현재와 같이 수정한 것이다.

(5c)의 「석보상절」도 「월인천강지곡」과 마찬가지로 변개된 것이다. <사진 6>에서 보듯이 제4행은 13자, 제5행은 14자로 되어 있어 정상 자수보다 각각 2자, 1자가 적다. 「월인천강지곡」과 마찬가지로 판하본 완성 이후에 내용의 수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9)</sup> 원래의 「석보상절」 부분의 재구도 가능해 보인다. 지나친 추단은 금물이지만, 원래의 『월인천강지곡』의 내용을

19) 『월인천강지곡』의 가사가 달라진 것으로는 기14 외에도 기83이 알려져 있는데(김동소 1997: 138), 수정된 기83이 실려 있는 『월인석보』(권4:45)의 해당 부분에는 행관의 변동이 없다. 이는 최초의 원고에서 이미 수정되었거나 또는 판하본에서 행관에 맞추어 수정되었음을 말해준다.

고려하여 “(白象)을 트시고 히를 빼샤 兜率宮(이상 4행)/으로서  
느려 오심(5행 전반부)” 정도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한다.

기14의 후구에서 ‘조쯔븨니’가 ‘조쯔고’로 바뀐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사진 5>의 제7행은 13자로 1자가 적은데, 얼핏보더라도 ‘조쯔고’가 4글자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초의 판하 원고가 ‘조쯔븨니’ 4글자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해당되는 『석보상절』의 내용은 그 어느 쪽이든 무관한 표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변개가 판하본이 완성된 이후의 수정인지, 판각 이후의 매목에 의한 수정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사진 5>와 <사진 6>에서 □ 표시한 부분이 수정되었음만은 확실하다.

### ③ 본문의 어구, 어형의 수정

권19에서 113b면 본문 제2행은 2글자가 감소하였는데, ‘(彌勒菩薩이 三十二相) 겨신 大菩薩衆의 모다 圍遶ᄃᆞ시며’의 ‘겨신’은 4자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겨신’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큰 글자와 넓은 자간으로 매우 어색해 보인다. 이들은 최초 판하에서 4글자로 된 어형이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화경언해』에는 이 부분이 ‘잇느’(7:177a)으로 되어, 수정된 『월인석보』의 문맥과 같이 ‘大菩薩衆’을 수식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석보상절』(21:58b)에서는 이 부분이 ‘(彌勒菩薩이 三十二相이) 잇고’로 되어 있어 전혀 다른 번역을 보여준다. 『월인석보』의 편찬자가 행관을 크게 어그러트리면서까지 수정(판각 완료 후의 매목 수정일 가능성이 높다)을 한 것

으로 보아 수정 전의 4글자로 된 어형은 오역임이 분명하다. 『월인석보』는 『석보상절』의 번역을 바탕으로 하되, 나중에 수정한 부분은 『법화경언해』에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아마도 ‘(三十二相)이 겨시고’와 같은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본문에서 해당 어구만을 수정하여 글자수가 감소한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권12: 19b4 (比喻엿) 말로 [1자 감소]

권13: 25a4 (일후믈) 아히라 흐니 [1자 감소]

이와 달리 해당 행 전체의 글자 크기를 고르게 하여 자수를 줄인 경우도[권1:7a2(본문 1자 감소), 권7:8b1~3(본문 3행에 걸쳐 각 2자 감소)] 있으나, 이때에는 수정된 어형이 무엇인지 더욱 알기 어렵다.

#### ④ 협주의 어구, 어형 수정

권15의 장23a면부터 장24b면 사이의 협주에는 ‘가즐비니라’가 모두 6회 나오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의 행관 6곳(23a5-2, 7-1; 23b1-2; 24a7-2; 24b1-2, 4-2)은 모두 각각 1자씩 줄어 행당 14자로 되어 있다. 이는 ‘가즐비니라’의 어형이 판하본 완성 이후 판각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부분은 『법화경』의 「오백제자수기품」으로 ‘술 취해서 잠든 친한 친구의 옷 속에 보주(寶珠)를 매달아 준’ 이른바 의리계주(衣裏繫珠)의 비유에 대한 주석이다.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오백 제자가 세존께 말한 비유인데, 협주만 놓고 보면 부처의 비유 설법

처럼 보일 수도 있다.<sup>20)</sup> 번역자가 불경언해에서 흔히 나오는 어구 ‘가줄비시니라’로 착각할 만한 대목이다. 이 오류는 판하 서사자의 우연한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 여섯 군데에서 모두 똑같은 실수가 일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초 판하본의 어형이 ‘가줄비시니라’였고, 이후 그 번역구의 오류가 발견되어 ‘가줄비니라’로 수정된 것임을 확신한다.<sup>21)</sup> 이 수정은 판하 원고의 수정이 아니라, 판각 이후 매목에 의한 보각 수정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해당 부분들은 모두 5자 공간에 4자가 긴 글자로 들어가 있다. 해당 행 전체의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지 않고 최소한의 수정을 한 것이다. 둘째, 마지막 ‘가줄비니라’(24b4-2)는 주석의 마지막 행이므로 6자 공간에 5자를 쓰고 그 다음을 공백으로 두는 것이 협주의 체재에 맞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리하지 않았다. 해당 부분의 어형 수정이 판각 이후에 일어났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당 글자수가 감소했을 때 해당 어형 부분만을 수정하여 자간이 넓어진 예는 본문보다 협주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들은 판하본 완성 이후, 또는 판각 이후에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대부분 수정 이전의 어형을 추측하기 어렵다. 현전본의 협주에 나타나는 예들을 다음에 제시해 둔다. 앞뒤 어형을 괄호 속에 함께 보인다.

20) 협주 첫 문장이 그러하다. “親훈 버디 구슬 킨요몬 부테 十六 菩薩에 조차 도와야 겨심 저고 爲훈야 法華 니랴샤 大乘因 킨샤를 가줄비니라”(15:23a). 여기서 ‘부테’는 명사구 내포문 ‘~ 킨샤’의 주어인데, 상위문 서술어 ‘가줄비-’의 주어처럼 보일 수 있다.

21) 해당 어형은 『법화경언해』에서 ‘가줄비수오니라’(3회, 4:38b), ‘가줄비습고’(2회, 4:40a), ‘가줄비니라’(1회, 4:40a)로 나타난다.

권4: 27a7-2 (峯은)뫼부리(라) [1자 감소]

권11: 40b7-1 (螺는) 골이오 [1자 감소]

권11: 88a2-2 갓가뵤며 [1자 감소]

권11: 97a7 二乘의 願慕를 [1자 감소]

권15: 68a6-2 (自在)흔 히믈 (뵤샤) [1자 감소]

권18: 55b3-2 (能히) 비취여 뵤 (씨) [1자 감소]

권18: 62b2-2 네 困 시므샤 [2자 감소]

권20: 90b1-1 (香) 믈 썩려 [1자 감소]

이와는 달리, 협주의 1행 글자 수는 감소했으나 글자 크기와 간격을 고르게 하여 해당 행의 판하를 새로 써서 판각한 경우도 있다. 권8(25a6), 권11(118b1), 권13(34b2)에서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는데, 이때에는 수정된 어형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이 수정은 판각 완료 이후의 수정이 아니고 판하본의 수정일 것으로 보인다.

#### 4 맺음말

본고는 『월인석보』 현전본에서 행관의 변개가 일어난 부분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유형에 따라 각각의 변개가 일어난 시점과 원인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자료 조사 과정에서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였으나, 눈과 손에만 의존한 조사 이기에 누락된 용례가 전혀 없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관 변개의 대체적인 윤곽만은 어느 정도 드러났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이에 본론에서 다루었던 『월인석보』 행관 변동의 양상과 그에 대한 해석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삼고자

한다.

1. 『월인석보』 편찬에 앞서 편찬자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의 합편 체재에 따라 본문과 협주의 행관을 확정하고 그에 맞추어 판하본의 서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전본에서는 행당 정해진 자수가 지켜지지 않은 예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2. 협주에서 한두 글자로 인하여 새로운 행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판하 서사자는 행 넘김을 막기 위해 해당 행의 자수를 늘리는 일이 간혹 있다. 특히 몇 글자로 인하여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서사자는 본문의 행당 자수를 늘려서라도 장 넘김을 막기도 한다. 이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판하 서사자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
3. 권15의 성암본과 선운사본의 비교를 통하여, 판각을 완료하여 간행한 이후에도 번역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해당 부분을 매목 수정하여 다시 간행한 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수정된 어구가 들어 있는 행의 자수에 변동이 일어난다.
4. 많은 분량의 협주가 추가되는 경우에 그 추가된 장차는 가지번호를 가지게 되는데, 가지번호를 매기는 방식은 추가된 협주가 기존 장차의 어느 위치에 몇 장의 분량으로 삽입되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장차에 가지번호를 가진 권차의 책은 책판의 판각이 완료된 이후에 추가 판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행관 변경의 대부분은 판하본 완성 이후의 수정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가운데는 판각 이후의 매목

에 의한 수정, 판하본 작성 과정 중의 수정도 있겠으나, 현  
전본에서 그들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6. 해당 자수가 증가한 경우는 본문과 협주의 내용이 추가되  
었거나, 어구나 어형의 수정이 일어난 데 그 원인이 있다.  
후자의 경우 해당 어구 부분만 글자수가 촘촘하게 늘어난  
것은 판각 이후의 수정일 가능성이 높고, 관련 문헌과의 비  
교를 통하여 수정 전 어형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7. 해당 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어제월인석보서」의 판하  
작성자가 실수로 언해문에 대두법을 적용하였다가 추후  
그것을 수정한 정황을 볼 수 있고, 「월인천강지곡」 기14의  
본문 가사와 해당 「석보상절」 내용의 수정이 판하본 완성  
이후에 이루어진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어구나 어형의 수  
정에 따라 해당 자수가 줄게 될 때는 해당 어형의 자간을  
넓혀 수정한 경우가 많은데, 그 수정 이전 어형을 추정하  
기는 쉽지 않다.

□ 논 문 투 고 일 : 2022.11.13.

□ 심 사 완 료 일 : 2022.11.24.

□ 게 재 확 정 일 : 2022.11.24.

## 참고 문헌

- 강순애(2003), “초참본 <월인석보> 권15에 관한 연구: 그 저경과 구성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제25집, 서지학회.
- 김기종(2010), 『월인천강지곡의 저경과 문학적 성격』, 도서출판 보고서.
- 김동소(1997), “<월인석보> 권4 연구,” 『(영인본)월인석보 제4』, 경북대학교 출판부.
-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10), 『역주 월인석보(제15)』.
- 안병희(1987), “월인석보 권11,12에 대하여,” 『국어생활』 제9호, 국어연구소. [안병희(1992)에 재수록]
- 안병희(1990), “훈민정음언해의 두어 문제,” 『벽사 이우성선생 정년퇴직기념 국어국문학논총』, 여강출판사. [안병희(2007)에 재수록]
- 안병희(1992),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 안병희(1993), “월인석보의 편간과 이본,” 『진단학보』 제75호, 진단학회. [안병희(2009)에 재수록]
- 안병희(2007), 『훈민정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안병희(2009), 『국어사 문헌 연구』, 신구문화사.
- 이호권(2003), “두시언해 중간본의 판본과 언어에 대한 연구,” 『진단학보』 제95호.
- 이호권(2011a), “<월인천강지곡> 결사의 재구 시론: 『월인석보』 권 25 권말 주석 복원을 겸하여,” 『국어국문학』 제157호, 국어국문학회.

- 이호권(2011b), “『월인석보』 권두 부속문자의 서지,” 『민족문화논총』 제48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이호권(2019), “『용비어천가』 판본의 변개와 그 해석,” 『국어국문학』 제186호, 국어국문학회.
- 천명희 편(2019), 『광흥사 초간본 월인석보 권21』, 경진출판사.
- 천혜봉(1991), 『한국서지학』, 민음사.
- 최은규(1998), “월인석보 권15 해제,” 『서지학보』 제21호, 한국서지학회.
- 허웅·이강로(1962), 『주해 월인천강지곡(상)』, 신구문화사.

**A Philological Study on the Alteration  
in the Number of Characters per Line in *Worinseokbo***

**Ho-kwon Lee**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NOU

*Worinseokbo* is a book published in a total of 25 volumes in 1459 (the 5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jo) by combining *Worincheongangjigok* and *Seokbosangjeol*. Even though the king was involved in the publication,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number of characters per line changes. The root cause of this alteration is that many additions and modifications were made to the *Seokbosangjeol* section of *Worinseokbo*. The compiler of *Worinseokbo* shows a tendency to be more faithful to the contents of the original Buddhist scriptures rather than *Seokbosangjeol*. As a result, *Worinseokbo* is often added or modified even after the manuscript, which is the basis for engraving, is completed. The result is the change in the number of characters per line in the current version of *Worinseokbo*. This paper aimed to identify the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is book by examining all the parts with alterations in the number of characters per line in the

*Worinseokbo* and examining the types and causes of the changes. The change in the number of characters per line was mostly due to the addition or modification of the content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manuscript. Some of them were revised after the engraving was completed, and others were revised after the publication was completed.

| **Key Words** | *Worinseokbo*, *Worincheongangjigok*, *Seokbosangjeol*,  
the number of characters, alteration